



석우 스님의
주주록 선해

수행자라면 정치에 관여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입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손을 펼치지 발을 펼치지 않아.”

問 如何是沙門行 師云 展手不展脚

여기서 발은 대인관계, 정치적인 일, 큰 일 등을 말하고, 손은 걸시키는 것, 사람을 교화하는 일, 발에서 일하는 것, 손으로 물건을 다듬는 장인의 일 등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수행자라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종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이 어찌 수행자가 있을 곳이겠는가. 발을 넓히는 것은 수행자의 갈 길이다. 큰 코끼리는 왕사나 국사의 자리를 관해도 기어이 나아가지 않는다. 작은 여우는 먹에 도대체 눈을 떼지 않는 법이다.

참다운 수행자라면 늘 자기를 살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아울러 장인과 같은 오묘한 지혜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을 주주 선사는 손을 펼치지 발을 펼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우두법용(牛頭法融)이 4조 도신(道信)을 상견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땀나뭇물도 충분했어.”
학승이 말했다.
“상견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땀나뭇물도 충분했어.”

問 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 飽柴飽水 云見後如何 飽柴飽水

우두법용 스님이 출가하여 49세가 되자, 건강 우둔산 유서사(幽棲寺) 북쪽 바위 아래에 선실(禪室)을 짓고 살았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올렸다.

하루는 4조 도신(道信) 스님이 와서 법 일러움을 받고 심요(心要)를 깨달았으며, 이로부터 사방에 도속(道俗)들이 물려와 교화를 받게 되니, 문인이 100인이 넘었다. 그런데 도신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후부터는 이상하게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

도신을 만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수행할 때이다. 이것을 본 제석천왕과 하늘의 선녀들은 앞을 다투어 공양하고 꽃을 뿌렸으므로 당연히 땀나뭇물과 물이 충분했었다. 그러나 도를 이룬 후에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재화(財貨)가 끊어졌다는 말이다. 도를 이룬 후 오히려 가난해진 것이다. 왜인가?
주주 선사는 이 물음에 대하여, 깨닫기 전이나

후나 땀나뭇물도 물도 충분했다고 대답했다. 만일 내게 이 조주의 뜻을 묻는다면, “주주 선사는 어제의 일은 몰라도 내일 일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자신입니까?”
주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나?”
학승이 말했다.
“먹었습니다.”
주주 스님이 말했다.
“발을 닦아놓아라.”

問 如何是學人自己 師云 喫粥了也未 云 喫粥也 師云 洗鉢盂去

몸[身]은 내가 아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나이다. 몸의 주인을 부처라고 부르고, 혹은 우주의 주인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자신을 알 것인가? 독자들은 지금 곧바로 오른 손을 천천히 들어서 자기 귀를 만져보라. 그때 깨달라. 이 귀를 만지는 자(者)! 그가 바로 참나요, 주인이요, 부처이다. 손을 들어 일하고 발을 들어 걸어갈 때 깨달으라.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자, “이 자가 주인이구나.”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라. “아! 이 자로구나.” 하고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금강경

부처가 1250 제자에게 설한 법문

《금강경》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대비구와 함께 머물면서 설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발심해야 하는가’, ‘어떻게 청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까닭에 수행과 깨침을 지향하는 선종에서는 일찍부터 중요시되었다. 선종의 역사에서 보이는 그 간접적인 발단은 보리달마에게서 비롯한다.

달마는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반야경》을 통하여 수행하고 깨쳤으며 《반야경》 사상에 근거하여 정법안장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달마로부터 시작되는 선종은 자연스럽게 《반야경》에 근거한 수행과 그 깨침으로 나아갔다. 그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금강경》에 담겨있는 내용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먼저 발심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그 발심은 곧 반야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상구보리라고 하회중생하는 보살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로 본래성불에 근거하여 발전된 조사선인

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보살에게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4종심을 실천하는데 다음과 같이 진심을 발휘하여 무주심으로 입할 것을 강조한다.

그 설법대상은 곧 수행의 주체로서 모든 대승인과 최상승인,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이다. 이들을 상대로 하여 설하는 내용은 제일의실단을 설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염불삼매를 증진시키고, 중도를 드러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없애며, 중생의 분별과 집착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로 설정되어 있다. 무주는 무소주로서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한 가지에 얽매어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삼계에 윤회하게 된다. 따라서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친다. 무상은 모든 차별상이 없는 것이다. 중생의 경우 일체법에서 분별상을 취하여 거기에서 취사분별의 망상심을 일으키는 데 분별심은 보살의 근본번뇌이다. 따라서 갖가지 망상분별을 내어 삼계윤회의 근원을 일으킨다. 때문에 일체를 공하게 보는 무상을 가지고 본체를 삼으라고 가르친다. 무념은 일체만경에서 망념을 내지 않는 것이다.

《단경》에서는 특히 무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요컨대 《일체만경》에서 분별상을 여의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을 무념으로 간주한다. 이에 해당하는 무념을 종지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황벽은 무심(無心)이라고 가르치며, 임제는 무사(無事)라고 가르친다. 이 셋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무념은 곧 정념으로서 분별이 없이 항상 자유롭게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단경》에서는 이것을 진여와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무주·무상·무념의 셋은 결국 무라는 한 글자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곳에서 묘유의 공정이 인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진실한 무상은 유상이고, 진실한 무념은 유념이며, 진실한 무주는 유주이다. 그리하여 무상은 모든 상을 섭수하지 않음이 없고, 무념은 모든 법을 계합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주는 자신이 모든 곳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이로써 반야는 단순한 부정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하고 진실한 자심이 무어자재하게 드러나서 무연대비심으로 일체를 인연한다. 이곳에 비로소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으며,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강경》의 무라는 한 글자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무는 응무소주의 부정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생기심이라는 긍정이 있고, 제상비상의 부정이 있는 곳에 도리어 즉견여래의 긍정이 있다. 그래서 진실한 세계는 비세계이고, 진실한 중생은 비중생이며, 진실한 대법은 비대법이고 비비법이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운상민의 서화산책 범구경 구

마음은 소리보다 빠르나니

意馳於響 難護難禁 慧正基本 其明乃大(의사어향 난호난금 혜정기본 기명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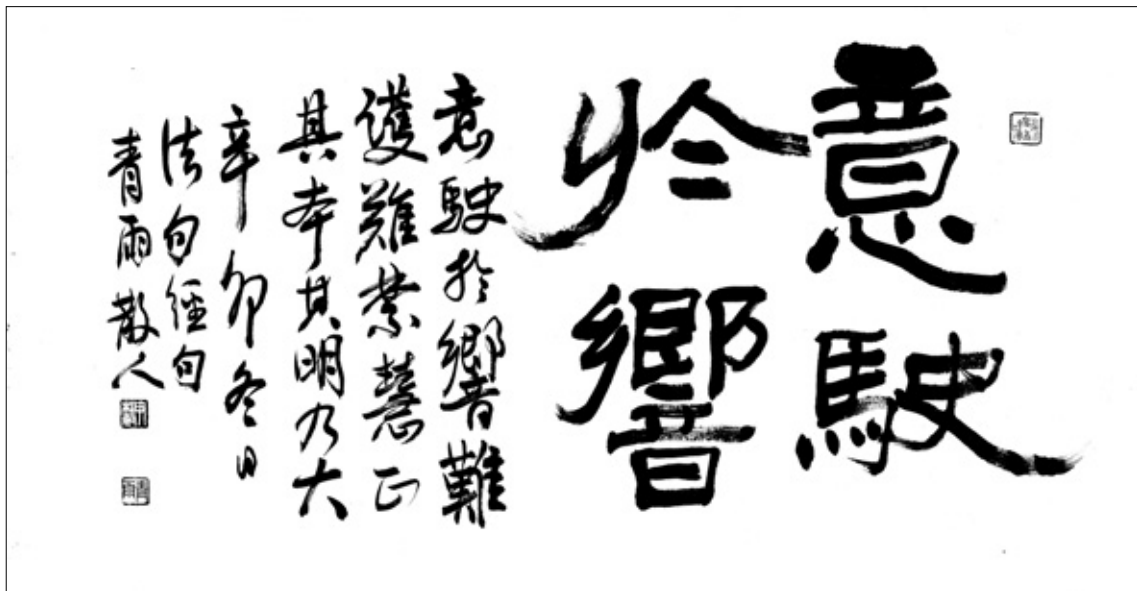
마음은 메아리보다 빨리 울려 퍼지니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근본을 바르게 하니 그의 현명함이 더욱 깊어진다. - 《범구경》 심의품 1장

駛: 달릴 사
響: 울릴 향
難: 어려울 난
護: 도울 호
禁: 금할 금
慧: 슬기로울 혜

청음기호의어의
범구경본사어
운상민동명어
선인동명해향
일대정난항사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서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함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 종합반 : 10인 이내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원장 우불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중로구 중로3가 16번지 교영빌딩 7층 / 1.3.5호선 중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